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7월 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8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25년 상반기 수입 공컨테이너 실태 조사 실시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선사 대상 유류세 보조금 지원
-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실시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관세 여파로 5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디플레이션 심화
- ▶ 텐진항, 전 공정 자동화 추진
- ▶ 이스라엘-이란 갈등 격화로 해운업계, 중동 항로 차단 우려 속 긴장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25년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8% 증가
- ▶ 친환경차, 내연차 첫 역전으로 내수 증가 견인
-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착공식 개최¹⁾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1단계 항만배후단지(이하 서컨배후단지)에 엘엑스판토스신항 에코물류센터 착공식이 지난 6월 19일에 개최됨

 - 해당 물류센터는 면적 12만 5,720㎡ 규모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기능과 혁신 물류기술 등의 요소를 갖춘 미래형 물류센터임
 - 본 사업은 (주)엘엑스판토스신항물류센터와 LG전자(주)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어 LG(주) 수출입 화물의 전진기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임
 - '27년 본격 가동이 되면 연간 약 13만 7천 TEU의 물량과 18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은 기존 1만 평 규모의 배후단지 공급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래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의 부지 공급정책으로 추진됨

 - 입주 기업이 포장, 조립, 가공, 라벨링 등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향후에도 항만 배후단지 정책 방향과 기업 수요에 맞춘 유연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6.1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820>(2025.06.24. 검색)

2 '25년 상반기 수입 공컨테이너 실태 조사 실시²⁾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BPA와 6월 12일부터 2주간 '25년 상반기 부산항 공컨테이너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본 조사는 붉은 불개미 등 외래유해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왔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생태원, 부산세관, 운영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임
 - 약 100여 개의 수입 공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외래유해생물 및 오염물질 유입 여부, 컨테이너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임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선사,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여 선사의 자발적인 공컨테이너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임
 -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수입 공컨테이너 간이검사 및 실태조사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6.17.),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387(2025.06.24. 검색)

2) 인천항



1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현황³⁾⁴⁾

- 인천항은 개항 이후 서울경기 산업단지의 원자재 공급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신항 개장 이후 글로벌 물류항만으로 성장할 여건을 마련함

 - 단순 벌크항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인천항은 '01년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송도해역 인천신항 개발이 반영되며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함
 - 인천신항 1-1단계 개장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만 TEU를 넘어 '24년 355만 8,329 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원양항로 개설로 미주항로 서비스는 6,800 TEU급에서 출발해 현재 1만 3,000 TEU급까지 확대되며 연간 물동량도 '22년 1만 7,328 TEU에서 '23년 3만 9,456 TEU로 증가함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인천신항 1-2단계 부두를 국내 두 번째 완전자동화부두로 개발 중임

 - U-타입 설계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내·외부 차량 동선 간섭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함
 - 연간 164만 TEU 처리 능력을 확보하며 기존 1-1단계보다 26만 TEU가 증가할 예정임
 - 총 3,953억 원을 투입해 '21년 8월 하부 공사를 착수, 현재 공정률 97.7%를 기록하며 '25년 11월 하부 공사 준공, 12월 상부 공사 착수, '27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최대 3만 TEU급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4,000 TEU급 3선석 규모로 설계됨
 - IPA는 지분 10%를 출자해 처음으로 터미널 운영에 참여하며 항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3) 인천일보(2025.06.02.),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182>(2025.06.24. 검색)

4) 경기일보(2025.05.2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5>(2025.06.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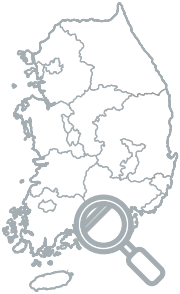
인천신항 1-2 컨테이너
터미널 조감도



자료: 인천일보(2025.06.02.),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여수·광양항



1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 A3-1부지 분양공고 실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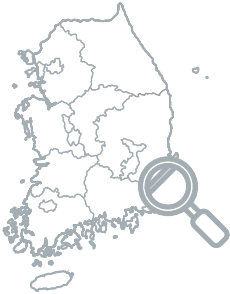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내 1단계 A3-1부지(43,979㎡)에 대한 분양공고를 '25년 6월 26일자로 발표함
- 해당 부지는 '미래 신소재 산업 시설' 용도로 공급되며, 공급용도는 산업·물류 기능용지,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임
- 입주 가능 업종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제조업과 전기·가스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H52) 등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컨소시엄(대표사 지분 25% 이상)이 입찰 가능함
- 분양가는 14,077,677,900원이며,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2025년), 중도금 30%(2026년), 잔금 60%(2027년)로 분할 납부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참가보증금 납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5%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 등은 무효 처리됨
- YGPA는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개발시기와 용도 이행 여부,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요건, 환매 특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하며, 향후 사업완공 보증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6.26.), https://www.ygpa.or.kr/hmpg/cplw/info/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419&pst_no=389273380F7F4AA1A6E962F4429CA489(2025.06.26. 검색)

4) 울산항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선사 대상 유류세 보조금 지원⁶⁾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2개 회사를 대상으로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25년 3~5월에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경유가 대상이며, 보조금 단가는 리터당 3~4월은 224.28원, 5월은 266.58원임
 - 울산청은 1분기에는 13개 회사 36척을 대상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하역안전벨트' 운영으로 안전사고 저감 추진⁷⁾

- 📍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하역안전벨트'를 구성하고 5월 22일에 첫 회의 개최함
 - 회의에는 UPA를 비롯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등 참여했으며, 격월로 운영할 계획임
 - 하역 시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발굴을 논의하고 하역 안전사고 저감 기본계획 등을 논의함
 - 특히, '울산항 하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적용 확대', '하역 안전문화 확산'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2025.05.16.),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10414\(2025.06.24.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10414(2025.06.24. 검색))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5.22.),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5209\(2025.06.24. 검색\)](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5209(2025.06.24. 검색))

5) 평택·당진항



1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실시⁸⁾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분양 대상지는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업무편의시설용지 4개 필지(6,556㎡~8,026㎡)와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 1개 필지(59,438㎡)임
 - 업무편의시설용지에는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상업 시설 등이, 복합물류제조시설 용지에는 항만 관련 물류시설, 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항만배후단지는 '28년 상반기 조성 완료를 목표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을 추진 중임

 - 입주기업과 평택·당진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사업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됨
 -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강화 및 첨단 비즈니스와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 인접성과 우수한 교통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함

 -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짧은 항로 거리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
 -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과의 뛰어난 연계성을 통해 내륙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8) 이코노믹포스트(2025.06.26.), [https://www.economicpost.co.kr/137159\(2025.06.26. 검색\)](https://www.economicpost.co.kr/137159(2025.06.26. 검색))

6) 포항항

① 영일만항 수림대 조성사업 준공⁹⁾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25일 포항 영일만항 일대의 비산먼지와 분진 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함
- '23년 4월 착공해 약 2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이 사업은 총 55억 원이 투입, 약 3만 m² 면적에 곰솔, 전나무 등 해안 친화 수종 약 3만 5천 그루를 심는 대규모 녹화 프로젝트임
- 이는 항만 내 화물차량 이동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공기 흐름을 고려해 식재 밀도를 달리한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 등을 구역별 조성함으로써 기후 여건에 따라 먼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황토길과 정자 등 휴게공간도 마련돼 항만 배후지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9) 해사신문(2025.06.25.),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21>(2025.06.25.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시, 동해신항 및 임항교통시설 건설사업 본격 추진¹⁰⁾

- 동해시는 동해신항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월 16일 밝힘**

 - 동해신항의 석탄부두(1번)는 설계 완료 후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기타광석(2번) 부두와 잡화(3번) 부두는 설계가 완료되어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 특히,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4번 부두의 기능을 기타광석에서 화학공업생산물 처리 기능으로 전환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라 수소(암모니아) 기반 생산물 수입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됨
- 동해신항 임항교통시설 확충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신항과 삼척해변역을 연결하는 3.6km 인입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단과 항만을 연결하는 0.76km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임**

 - 국도 38호선과 7호선을 잇는 2.7km 연결도로는 실시설계가 막바지이며, 주민설명회도 개최된 상태임
 - 동해시는 동해신항이 본격 가동되면 동해·묵호항의 벌크 화물 기능이 이전되어 체선율이 감소하고, 항만 인근 환경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당초 목표인 2030년 준공을 위해,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은 5~7번 부두에 대해서는 공공재정사업 전환을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임
 - 동해시 산업정책과 이인섭 과장은 “동해신항 개발은 향후 동해·묵호항이 환동해권 물류 및 관광거점 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한 추진 의지를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0) 연합뉴스(2025.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047200062\(2025.06.27.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047200062(2025.06.27. 검색))

8) 목포항



1 목포신항에 전국 최초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준공 예정¹¹⁾

-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산업 전 과정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센터가 6월 준공 예정임**
 - 총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된 플랫폼센터는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됨
 -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부터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춘
- 플랫폼센터는 해상풍력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해상풍력 관련 국책연구과제 수행, 항만물류 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 등 산업 전반을 총괄함
 - 기업입주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구비하여 관련 기업과 기관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1층 홍보관을 통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운영됨
- 7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이 입주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목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항만-배후단지-연구기관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됨
 -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특화 항만으로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활용하여 산업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1) 연합뉴스(2025.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7500054\(2025.06.25.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7500054(2025.06.25. 검색))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간자본 활용한 국고여객선 2척 동시 건조 추진¹²⁾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은 국가보조항로 투입을 위한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본격 추진함
 -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충남 보령시 오천-선촌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노후 여객선 및 예비선박을 대체할 목적임
 - 국가보조항로는 연안여객선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항로이며, 대산청은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구성된 펀드를 활용하여 국가가 20년간 용선 후 선박을 취득할 계획임
 - 국고여객선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 여건상 적기 건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산해수청은 금년도에 선박 설계 후, 내년 초에 건조를 착수하고 연말에 총톤수 150톤급 차도선 2척을 현장에 대체 투입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대산청, 친환경 청항선 '청해랑호' 취항¹³⁾

-  청해랑호 취항식이 6월 10일 대산항에서 개최되었으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청항선인 청해랑호가 본격 운항을 시작함
 - 총톤수 94톤, 길이 24.7m, 너비 8.5m 규모의 청해랑호는 디젤 기반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선박으로 기존 대비 연료 효율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확보함
 - 청해랑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해양오염방재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어 대산항 및 인근 해역에서 오염사고 대응 업무 수행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6.11.),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10999>(2025.06.24. 검색)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6.11.),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11000>(2025.06.24. 검색)

10) 마산항



①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본격 추진¹⁴⁾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항 일원의 재해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함
 - 마산항은 태풍 매미('03년 9월) 당시 인명 피해와 공장 침수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33년간('92~'24년) 마산항에 내습한 태풍은 총 46회로 나타남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설계파 개정에 따른 재해안전항만구축 보완용역’에서 마산항 제2·3·4부두의 경우, 폭풍해일 내습 시 주민 거주지역과 중요시설이 있는 구간에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 지역으로 선정됨
 -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9년까지 582억 원으로 방호벽 5,530m, 잔교식 방재언덕 520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5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창원시청, 창원해경 등 관계기관 참석하에 착수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고, 지역 의견 수렴,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시설 운영방안 사전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4) 한려투데이(2025.06.23.), [https://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16\(2025.06.25. 검색\)](https://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16(2025.06.2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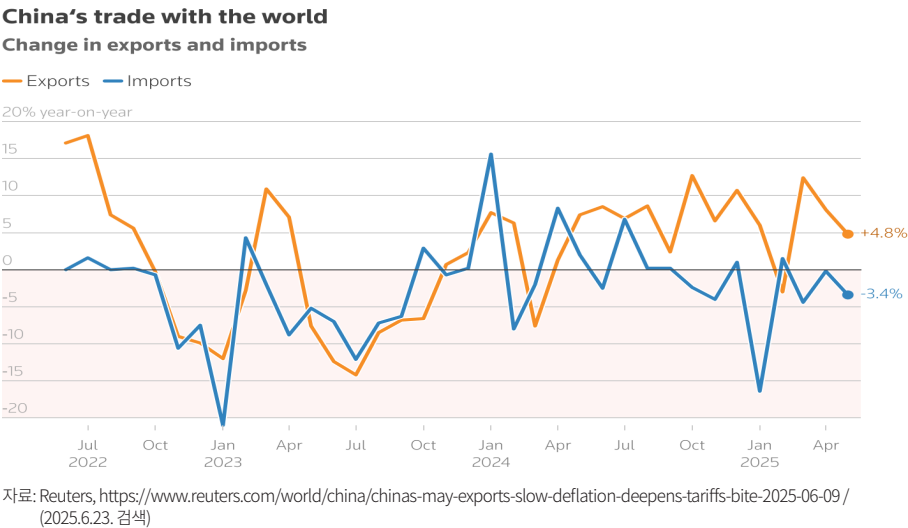


① 관세 여파로 5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디플레이션 심화¹⁵⁾

- ◆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중국의 5월 수출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25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하며 4월(8.1%) 대비 둔화되었고, 전문가 예상치(5.0%)도 하회함
 - 특히 對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5% 급감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무역이 타격을 입었던 '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임
 - 4월 초 미중 간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함
 - 다만, 관세 위험에 따른 선제 출하와 함께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매 가속이 중국 수출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남
- ◆ 수입의 경우 석유, 석탄, 철광석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對미 수입의 경우 4월 13.8% 감소에 이어 5월에는 18.1%로 감소하면서 더욱 악화됨
- ◆ 한편,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하여, 4월(-2.7%) 하락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22개월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미국의 고율 관세가 세계 최대 제조업 거점인 중국의 공장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서비스업 회복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수 부진과 낮은 가격이 중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수출에 의존한 회복세 속에서 내외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5) Reuters(2025.06.09.),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may-exports-slow-deflation-deepens-tariffs-bite-2025-06-09/> (2025.06.23. 검색)

중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입 증가세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텐진항, 전 공정 자동화 추진¹⁶⁾

- 중국 북부 텐진에 위치한 텐진항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전 공정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옴

 - 현재 컨테이너 및 벌크터미널 전반에 걸쳐 지능형 운영을 완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 장비의 자동화율은 88%를 넘어섰고, 평균 운영 효율도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능형 제어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항만 작업의 안전성 및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 금번 텐진항 자동화 성과 공개에 따라 중국 내 다른 항만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 항만 구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됨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스마트 운송 로봇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자료: 신화통신, <https://english.news.cn/20250619/a75e16f9b5e145f9a409b6dc8355a86f/c.html>(2025.06.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신화통신(2025.06.19.), <https://english.news.cn/20250619/a75e16f9b5e145f9a409b6dc8355a86f/c.html>(2025.06.23. 검색)

3 량산항,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으로 석탄 운송 효율 대폭 개선¹⁷⁾

-  중국 산둥성 지닝시에 위치한 량산항(Lianshan Port) 안정적인 석탄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 채굴, 저장, 운송, 판매 전 과정을 효율화함
 - 량산항은 중국 서부 석탄 산지와 장강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거점항만으로 기능하고 있음
 -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 시기에 대비하여 석탄 운송 효율성 개선을 위해 철도와 수로를 연계하는 복합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석탄의 재고량은 약 4,000만 톤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항만 운영 효율성은 전년 동기 대비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신화통신(2025.06.08.), <https://english.news.cn/20250608/1209a03b7a204a1b9e0d77e5dc354e72/c.html>(2025.06.23.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글로벌 공급망 병목화로 혼잡도 증가함¹⁸⁾¹⁹⁾²⁰⁾

- ’25년 6월 기준 아시아 주요 항만은 혼잡도 심화로 평균 대기 시간이 1.5일로 증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항의 PSA 터미널과 Tuas항 등 주요 터미널에서는 계획된 물동량을 초과하는 선박이 입항하며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 싱가포르항은 전 세계 주요 허브항만으로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환적 처리하고 있어, 항만 혼잡이 단순 지역 문제를 넘어 아시아-미주, 아시아-유럽 항로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혼잡도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고 있으며, 선박 입항·출항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선사들의 기항 일정 차질이 빈번해지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싱가포르항이 기존의 원활한 환적 거점을 넘어 새로운 병목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글로벌 물류기업과 해운 전문 매체들은 싱가포르항 병목화가 지속될 경우, 주요 항로에서 정시 서비스 신뢰도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주요 선사들은 혼잡 완화를 위해 기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화물을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의 항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싱가포르 항만 당국은 부두별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야적장 공간 최적화, 선박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는 단기적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Tuas 메가포트의 단계적 완공과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병목화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전문가들은 지속적 항만 혼잡이 글로벌 공급망의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Kuehne+Nagel(2025.06.13.), <https://mykn.kuehne-nagel.com/news/article/port-operational-updates-from-around-the-world-13-Jun-2025>(2025.06.24. 검색)

19) Seatrade Maritime(2025.05.28.), <https://www.seatrade-maritime.com/maritime-logistics/singapore-is-new-chokepoint-in-global-supply-chains>(2025.06.24. 검색)

20) The Business Times(2025.05.27.), <https://www.businesstimes.com.sg/companies-markets/asian-ports-reported-be-congested-average-waiting-time-singapore-1-5-days>(2025.06.24. 검색)

2 일본, 8개월 만에 수출 감소세로 전환²¹⁾

- 일본 재무성은 '25년 5월 일본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하여 최근 8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 감소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으로 미국향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하여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이는 미국이 5월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일본 완성차 업체 및 부품사들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전체 수출 중 미국향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관세 영향이 자동차 산업 이외에 광범위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 중국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분야의 수출 부진을 상쇄하지 못함
 - 일본 재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중심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이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 증설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일본 내 부품 공급업체 매출 위축 가능성이 제기됨
 - 한편, 수입의 경우 엔화 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가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식료품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1) Reuters (2025.06.18.), <https://www.reuters.com/business/japan-exports-post-first-drop-8-months-us-tariffs-hit-autos-2025-06-18/> (2025.06.27. 검색)

3 인도와 유럽, 로테르담항을 통한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 추진²²⁾

- 
인도 AM Green과 로테르담항만공사가 그린수소 및 저탄소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인도와 북서유럽 간 로테르담을 경유한 그린수소 공급망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아시아-유럽 간 청정연료 교역을 강화함
 - 벙커링 연료 공급, 로테르담 터미널 인프라 개발 요구사항 분석, 유럽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임
- 
구축 예정인 그린 공급망은 연간 최대 100만 톤의 수소 기반 연료 수출 능력을 갖추게 됨
 - 양 경제권 간 연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린암모니아, 그린메탄올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포함함
 - 인도의 넷제로 산업 클러스터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 협력은 로테르담의 유럽 최대 에너지 항만 지위를 강화하고 인도의 글로벌 재생연료 수출국 역할을 제고함
 - 로테르담항만공사 CEO 바우더베인 시몬스는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과 로테르담의 전략적 위치 및 첨단 인프라가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 중동, 남아시아 지역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도입, 해운 지속가능성 등 상호 목표를 지원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2) The Maritime Standard(2025.06.02.), <https://www.themaritimstandard.com/india-and-europe-collaborate-on-green-hydrogen-supply-chain-via-port-of-rotterdam/> (2025.06.26. 검색)

4 이스라엘-이란 갈등 격화로 해운업계 긴장 고조²³⁾

-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잠재적 항로 차단에 대비하고 있음
 -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확대 시 중동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와 원자재 운송 벌크선 서비스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HMM을 비롯한 다수 국내 해운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운송 서비스를 운영 중임
- 
국내 주요 해운사들의 중동 항로 운영 현황이 긴장 상황에 노출됨
 - HMM은 한국, 중국, 태국에서 바레인, 이라크, UAE로 향하는 정기 항로를 운영하며, 폭 54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인근 이란 상황에 쉽게 영향받음
 - 시노코머신마린과 흥아해운도 상하이를 거쳐 두바이에 도달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하며, 팬오션은 전 세계 각지에서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로 향하는 벌크 항로를 보유함
- 
해운업계와 포워딩 업체들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비상 계획을 준비 중임
 -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주요 항만으로 향하는 유일한 해상 루트로, 해협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항만과 육상 운송 또는 피더선 확보가 필요함
 - 4월 기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의 화물량은 총 1,544만 톤을 기록함
- 
JPMorgan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시 전면전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가능성을 전망함
 -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는 중동 지역 군사 활동 확대가 선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해 시 주의를 당부함
 - 현재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운업계는 비상시 승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3) CHOSUNBIZ(2025.06.16.), [https://biz.chosun.com/en/en-industry/2025/06/13/QBBRDS4LNVFBNNDE3WFH2K4XDI/\(2025.06.26. 검색\)](https://biz.chosun.com/en/en-industry/2025/06/13/QBBRDS4LNVFBNNDE3WFH2K4XDI/(2025.06.26. 검색))

3) 미주



① 우리나라 조선업계, 미국 항만 크레인 교체에 따른 시장 진출 기대²⁴⁾

- 🔍 미국의 탈중국 정책으로 중국산 제품이 장악한 항만 크레인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짐
 - 미국 항만의 크레인 약 80%는 중국산이나, 미국은 중국산 크레인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점유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부품 사용 시 100% 추가 관세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은 교체 작업에 약 27조 원 규모 예산 투입 계획을 세운 상태임
- 🔍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앞세워 미국 항만 크레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임
 - HD현대삼호는 설계부터 제작·시운전까지 전 공정의 자체 수행이 가능하며, 한화오션은 미국 조선소에 스마트 생산 시스템 도입 준비를 완료한 상태임
 - 또한, 조선·크레인 협력이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조선업계 혁신 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미국 LA항, 일자리 절반으로 감소²⁵⁾

- 🔍 트럼프 관세정책 여파로 미국 최대 항만인 LA항의 하역 일자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LA항은 2000년대 이후, 미국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기록을 이어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LA항 관련 일자리가 약 1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관세 및 무역 전쟁 파동의 여파로 아시아-태평양 화물이 감소함
 - 노동자들이 해고되지는 않았으나 일거리가 크게 줄었으며, 5월부터 감소세가 뚜렷해져 하역 노동자 1,575명 중 733명만 일자리를 얻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더퍼블릭(2025.05.26.),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4250>(2025.06.24. 검색)

25) 뉴시스(2025.06.0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8_0003204523(2025.06.24. 검색)

4) 유럽



① 앤트워프-브뤼헤항, 벨기에 전국 파업으로 인한 항만 운영 차질²⁶⁾

- 6월 25일 발생한 벨기에 전국 파업으로 앤트워프-브뤼헤항은 입출항 선박 통항이 제한되는 등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 앤트워프 지역은 플리싱겐(Vlissingen) 지역의 파일럿 서비스 중단, 예인선 전체 가용 능력 중 약 65% 수준만 가동 등으로 선박의 입출항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앤트워프 지역 내 갑문 6곳 중 2곳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 1곳은 제한적 운영, 나머지 3곳은 운휴 중임
 - 이에 따라, 25일 09:00 기준 입항 대기 선박 16척, 출항 대기 선박 12척이 모두 스케줄 미정 상태로 대기 중에 있음
 - 한편, 지브뤼헤 지역은 동일 시점 기준으로 큰 혼란 없이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6) Port of Antwerp Bruges(2025.06.24.), <https://www.portofantwerpbruges.com/en/news/crisis-update-disruption-due-national-strike-day-25-june>(2025.06.25. 검색)

2 EU, 탄소중립 향한 조치로 CO₂ 저장 의무화 추진²⁷⁾

25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제23조를 발동, EU 역내 44개 석유·가스 생산 기업에 CO₂ 저장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함

- 이는 화석연료 채굴과 탄소 저장 책임을 직접 연계한 첫 조치로,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임
- 각 기업은 6월 30일까지 자사의 ‘탄소 저장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EU는 ’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 ’40년까지 2.5억 톤의 CO₂ 저장 용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 CCS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개발에 6~8년이 소요되나, 대부분의 기업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 경험이 없어 ’30년 목표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기술을 보유한 3자 개발사와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노르웨이 및 영국은 본 조치에서 제외됐으며, 집행 및 규제 방안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현재 유럽 내 운영 중인 저장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Northern Lights와 덴마크의 Project Greensand 정도로 제한적인 상황임
- 해운·조선산업 연구기관인 Clarksons Research는, LCO₂(액화이산화탄소) 해상운송으로 해저 지중 등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실현 수단으로 분석하였음
- 이는 파이프라인 대비 더 짧은 리드타임, 유연한 확장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발표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Port Technology(2025.06.2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eu-mandates-co2-storage-in-major-step-toward-net-zero/>(2025.06.25. 검색)

5) 오세아니아



1 DXN, DP월드 포트보터니(Port Botany) 부지에 데이터센터 구축 계약 체결²⁸⁾

-  호주의 모듈형 데이터센터 제조 및 운영업체인 DXN은 DP월드(DP World) 오스트레일리아와 포트보터니(Port Botany) 부지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200만 호주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25일 발표함
 - 이전 계약은 데이터센터 2기 및 백업 시스템 설계, 제작, 납품을 포함하며, '25년 3분기 내 납품이 완료될 예정임
 - 계약 범위에는 전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전 제작(prefabrication), 설비 설치(fit-out)가 포함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필수 인프라 환경에서의 안정적이고 엣지(edge)-기반 배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임
-  DXN은 이번 계약이 DP월드와의 첫 거래로, 자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호주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DXN은 DP월드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포트보터니 시설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
 -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운영 민감도가 높은 환경에서 고객에게 신뢰성 있고 확장 가능한 모듈형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사의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Australian manufacturing forum(2025.06.25.), <https://www.aumanufacturing.com.au/dxn-awarded-2-million-data-centre-contract-for-dp-world-port-botany-site> (2025.06.27. 검색)

6) 아프리카



1 러시아 FESCO, 남아공 더반항 신규 정기 서비스 개시로 양국 간 물류 연결 강화²⁹⁾

- FESCO는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간 무역 확대를 위해 더반(Durban)항을 연결하는 신규 정기 항로를 개설함
 -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도 나바셰바(Nhava Sheva)까지 운항 후, 남아공 더반으로 환적하는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함
 - 남아공에서 러시아로의 수입 화물은 나바셰바 또는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Jebel Ali)를 경유해 노보로시스크로 운송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화물은 인도 문드라(Mundra)항을 경유함
- 이번 정기 항로는 FESCO가 '23년 개설한 인도 노선을 기반으로 하며, 인도 서부 항만(나바셰바, 문드라)을 중심으로 환적 물류 체계를 확대함
 - 현재 인도 서부 노선은 총 2,100 TEU 규모의 선박 2척으로 운영되며, 18일 간격으로 정기 운항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약 17일이 소요되며, '24년 인도 노선의 물동량은 1.6만 TEU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함
- FESCO는 총 30척의 선박과 2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수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내 주요 항만과의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정기 노선 개설은 양국 간 물리적 거리와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무역 제약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와 남아공은 농업, 에너지, 물류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수년 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The Maritime Executive(2025.06.22.),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as-kremlin-promotes-ties-with-s-africa-fesco-launches-new-durban-service> (2025.06.2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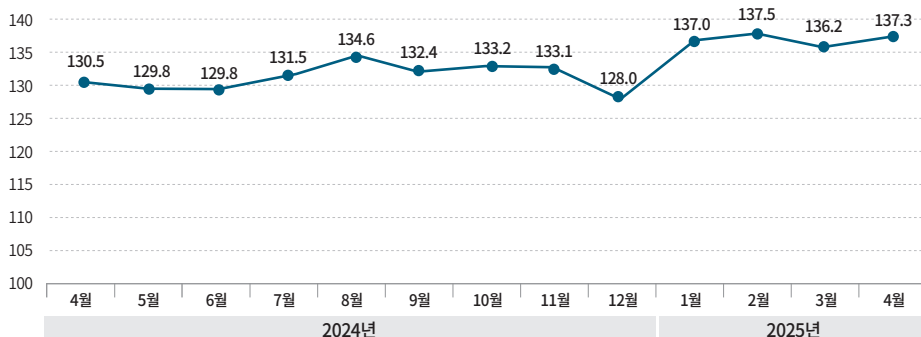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① '25년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8% 증가³⁰⁾

- '25년 4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137.3p를 기록함
-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역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컨테이너 운송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5월 이후 본격적인 영향 반영이 전망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5.8p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4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3.3p로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3.6%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0.5	129.8	129.8	131.5	134.6	132.4	133.2	133.1	128.0	137.0	137.5	136.2	137.3	0.8	5.2
China Index	151.5	145.2	145.1	147.3	150.2	147.6	148.6	144.5	134.8	154.9	157.6	152.9	155.8	1.9	2.9
North Range Index	109.4	110.7	110.0	110.8	114.4	112.6	115.1	115.2	108.4	114.7	112.3	112.2	113.3	1.0	3.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umschlag-index-0425\(2025.06.23.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umschlag-index-0425(2025.06.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2024.05.28.),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umschlag-index-0425\(2025.06.23.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umschlag-index-0425(2025.06.23. 검색))

2 아라비아반도 주변 해역 선박 위협 증가³¹⁾

-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한 이후, 이란의 대응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계 최대 선주 단체인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 Baltic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는 아라비아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함
 - 홍해 및 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스라엘이나 미국 관련된 상선을 위협하고 있으나 다른 국적 선박에 대한 위협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주요 해운사들은 항만 기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경계 수준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나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머스크(Maersk)는 이스라엘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하이파 항만에 대한 기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함
-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경유하는 구간으로, 해협 봉쇄 시 해상 운송비 증가와 공급망 지연 등 심각한 파급 효과가 예상됨
 - 실제로 상하이~제벨알리 노선의 스팟 운임은 6월 7일 기준 전월 대비 55% 상승해 2,761달러(40ft 컨테이너 기준)를 기록함
- BIMCO는 전쟁 지역 항해 중단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지만, 선박 취약성과 승조원 위험 수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주가 자체 판단할 것을 강조함
 - 다만, 이란 연안 회피 항로 설정, 의심 활동 대응, 강화된 경계 유지 등을 권장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CNBC(2025.06.23.), <https://www.cnbc.com/2025/06/22/threat-to-commercial-shipping-around-arabian-peninsula-is-rising-largest-global-shipowners-organization-warns.html>(2025.06.23.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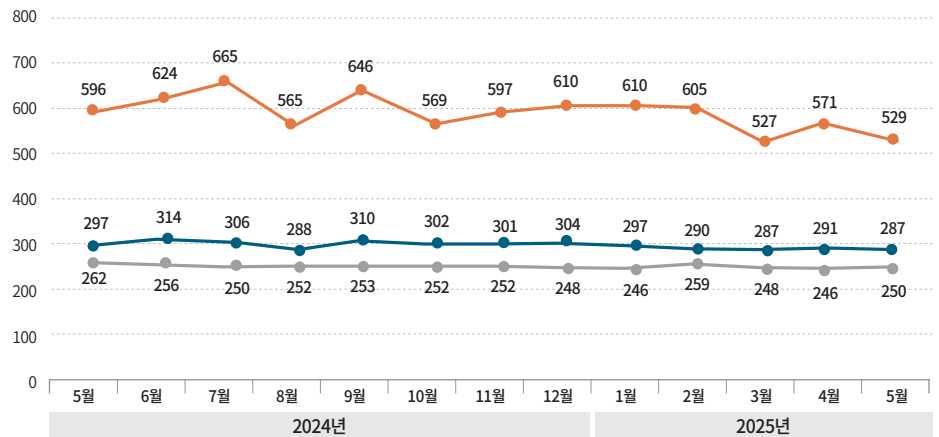


① '25년 5월 밀, 대두,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임³²⁾

- '25년 5월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톤당 287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대두는 11.3% 감소한 529달러, 옥수수 역시 4.3% 감소한 250달러 기록
- 전월 대비 실적의 경우 옥수수(+2.0%)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4월까지 나타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밀(+1.4%), 대두(-7.3%)는 하락세를 나타냄
 - 미국 내 주요 곡물 산지의 양호한 기상 조건과 순조로운 파종 진행에 따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기준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이 추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옥수수는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³³⁾³⁴⁾
 - 글로벌 공급 여건의 안정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정책 변동과 환율 변동성은 향후 가격 흐름의 변수로 지적됨
 - 이 같은 배경에서 '25년 5월 곡물 수입단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두와 옥수수는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로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밀, 대두, 옥수수 수 입단가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90	287	291	287	-1.4	-3.4
대두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610	605	527	571	529	-7.3	-11.3
옥수수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259	248	246	250	2.0	-4.3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04.30.), [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6.24.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6.24. 검색))

33) Chicago Board of Trade, [https://www.cmegroup.com/markets/agriculture/grain-and-oilseed.html\(2025.06.24. 검색\)](https://www.cmegroup.com/markets/agriculture/grain-and-oilseed.html(2025.06.24. 검색))

34)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corn\(2025.06.24. 검색\)](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corn(2025.06.24.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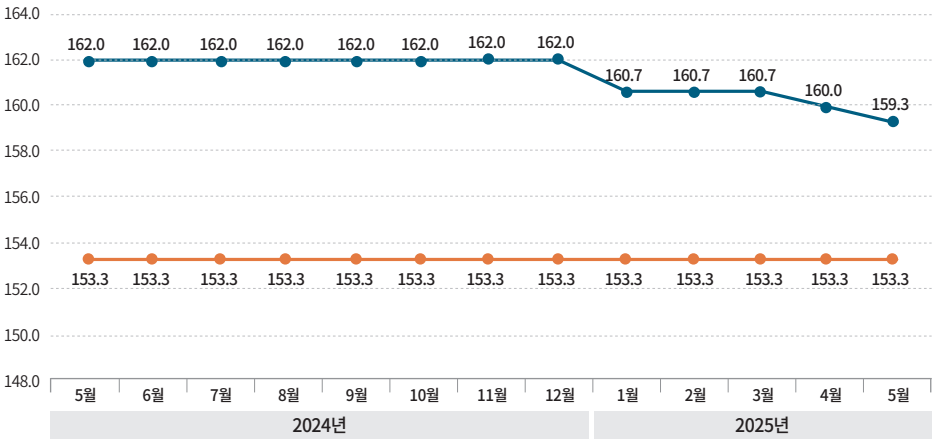
1 '25년 5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소폭 감소

- '25년 5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p 감소한 159.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4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임
-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0.4	-1.7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6.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6.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업계, '25년 1분기 실적 부진 속 수출 확대에 총력³⁵⁾

-  시멘트업계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내수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수출을 돌파구로 삼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음

 - '25년 1분기 국내 시멘트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812만t으로, 최근 5년간 1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삼표시멘트(영업이익 -89.5%), 한일시멘트(-75.5%), 아세아시멘트 (-70.4%) 등 주요 업체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쌍용C&E와 성신양회는 영업적자를 기록함
-  해안사들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해안사는 강원 연안에 공장을 두고 항만 접근성이 우수한 쌍용C&E(동해), 한라시멘트(옥계), 삼표시멘트(삼척) 등이 있으며, 수출 시 운송비 절감이 가능해 내륙사에 비해 유리한 구조를 가짐
 - 이들은 수출을 통해 클링커 및 시멘트 재고를 줄이고, 생산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쌍용C&E는 '25년 1분기 76만 4,000톤의 클링커 및 시멘트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수출량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수출 매출액도 약 320억 원으로, '24년 1분기 대비 110억 원 이상 증가함
 - 연간 기준으로는 '24년 총 수출액(1,042억 원)의 30% 이상을 이미 1분기에 달성한 셈이며, 연말까지 약 300만t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라시멘트도 수출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남미(페루, 칠레)를 넘어 아프리카(카메룬, 기니)로 수출 시장을 확대함

 - '25년 1분기 수출량은 16만 6,000톤으로, '23년 동기 대비 약 3.8배 증가함
 - 1분기와 4~5월 수출을 합산한 클링커 수출량은 43만 3,000톤이며, 연간 목표치인 71만4,000톤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삼표시멘트는 '25년 2분기 중 남미 지역과 클링커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수출 물량 확보가 기대됨

 - 다만 업계는 수출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내수 가격에 비해 수출 단가가 낮아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며, 수출은 내수 침체 대응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대한경제(2025.05.29.),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5281501395990011\(2025.06.27.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5281501395990011(2025.06.27.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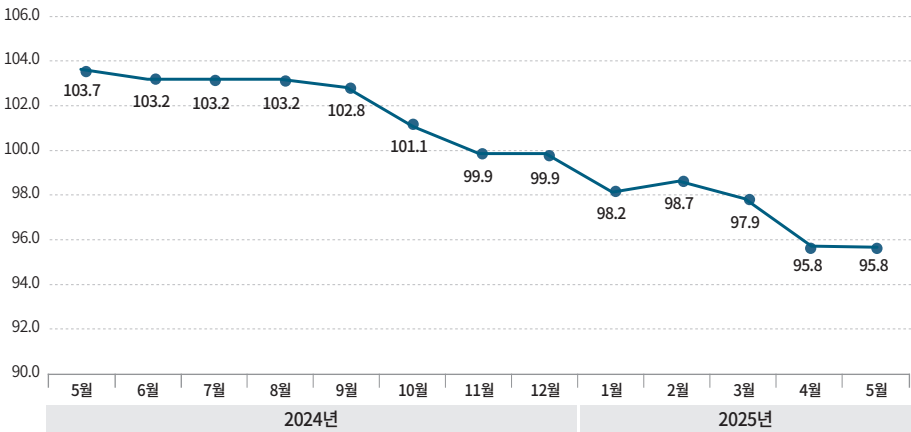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95.8p 기록

'25년 5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한 95.8p를 기록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95.8	0.0	-7.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6.27.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6.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웅진군, 바다골재 채취량 축소로 세입 급감³⁶⁾

-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원재료인 바닷모래 수요가 급감하면서, 인천지역 골재업체들이 웅진군에 채취 허가량 일부를 반납함

 - 웅진군의 '24년~'25년 바다골재 채취 허가량은 당초 542만 9천³m³에서 272만 9천³m³로 절반 가까이 축소됨
 - 전체 13개 인천 골재업체 중 9곳이 허가량을 줄였고, 이 중 6곳은 바닷모래를 전혀 채취하지 못함
-  채취 허가 축소는 웅진군 세입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임

 - 웅진군은 1m³당 5,027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며, 지난해에는 바다골재 채취로 약 234억 9천만 원의 세수를 확보함
 - '25년 본예산에서는 보수적으로 200억 원을 예상했으나, 채취량이 줄면서 점·사용료 세입 전망치는 137억 원으로 낮아짐
 - 실제 채취가 이뤄진 양은 5월 21일 기준 53만 3,178m³로, 줄어든 허가량의 20% 수준에 불과해 연말까지도 목표 세입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점·사용료 감소는 웅진군 내 각종 지역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골재 채취 점·사용료 세입의 절반은 수산자원특별회계로 편성돼 수산종자 방류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등에 활용됨
 - 나머지 절반은 일반회계로 섬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 군 자체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현재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단기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수익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웅진군의 재정자립도는 '24년 기준 9.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방교부세 규모도 '22년 2,140억 원에서 '23년 1,533억 원으로 감소함

 - 이로 인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 외에 세입 부족에 대한 뚜렷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경인일보(2025.05.27.),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070\(2025.06.27. 검색\)](https://www.kyeongin.com/article/1741070(2025.06.27.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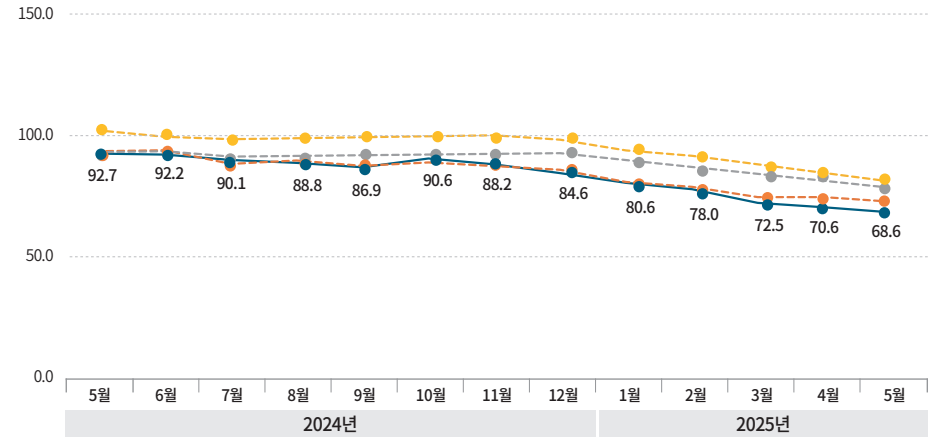
1 '25년 5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세 지속

- '25년 5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68.6달러로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함
- '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60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2.4%), 칼리만탄산(-3.3%), 중국남부산(-3.1%)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2.7	92.2	90.1	88.8	86.9	90.6	88.2	84.6	80.6	78.0	72.5	70.6	68.6	-2.8	-26.0
리차드베이	93.6	93.9	88.3	89.8	87.6	89.1	88.3	85.9	81.1	79.0	74.8	74.8	73.0	-2.4	-22.1
칼리만탄	93.1	93.7	91.4	91.7	92.0	93.5	93.6	92.9	89.6	86.3	84.5	81.6	78.8	-3.3	-15.3
중국남부	102.2	99.7	98.5	99.2	99.9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3.1	-20.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6.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6.24.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지속

-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건설된 석탄발전소 규모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³⁷⁾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에너지 투자(World Energy Investment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기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율이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중국과 인도는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각 100GW, 15GW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착공함
-  IEA는 올해도 글로벌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과 인도 외에도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있으며,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³⁸⁾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34년까지 2,967조 루피아(약 249조 5천억 원)를 투자해 69.5GW 전력 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6.3GW는 석탄 발전소를 통해 공급받을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후금융 협약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통해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JETP 탈퇴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임
 - 한편, 선진국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용 터빈에 대한 신규 주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7) 에너지경제(2025.06.05.), <https://m.ekn.kr/view.php?key=20250605025453761>(2026.06.24. 검색)

38) 연합뉴스(2025.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7060100104>(2025.06.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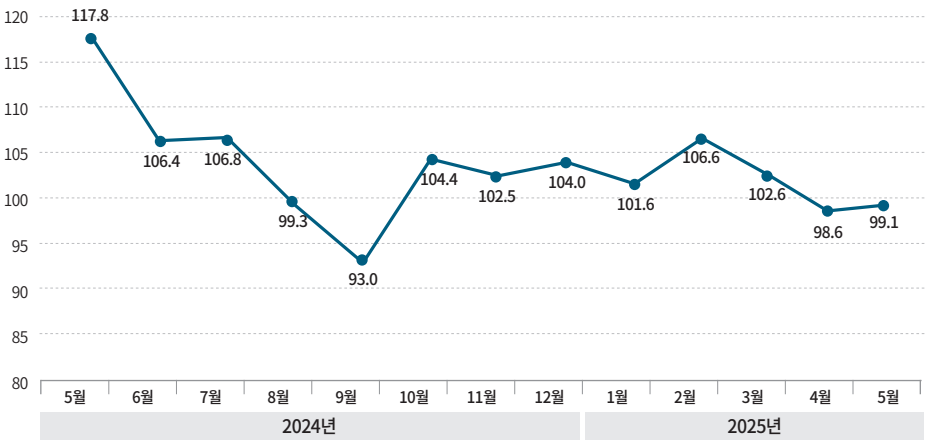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5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0.4% 소폭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한 99.1달러 기록

- '25년 5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99.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중국 내수 부진 및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 악화로 철광석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0.4	-15.9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6.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6.24.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25년 5월 누적 철광석 생산량 전년 대비 10.1% 감소³⁹⁾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5년 5월 누적 중국의 광산업체들의 철광석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4억 1,532만 톤을 기록함
 - '25년 5월 철광석 생산량은 8,579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1.3% 증가함
 - 철광석 해상 수입 물동량은 9,813만 톤으로 전월 대비 4.9%,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함
 - 수입 감소에 따라 항만 재고도 전년 대비 2.8% 줄어들어, 5월 30일 기준 1억 3,300만 톤으로 '24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한편, 중국 철강협회(CISA, 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는 올해 중국 철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원자재인 철광석 생산량과 수입량도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GMK Center(2025.06.23.), [https://gmk.center/en/news/china-reduced-iron-ore-production-by-10-1-y-y-in-january-may/\(2025.06.24. 검색\)](https://gmk.center/en/news/china-reduced-iron-ore-production-by-10-1-y-y-in-january-may/(2025.06.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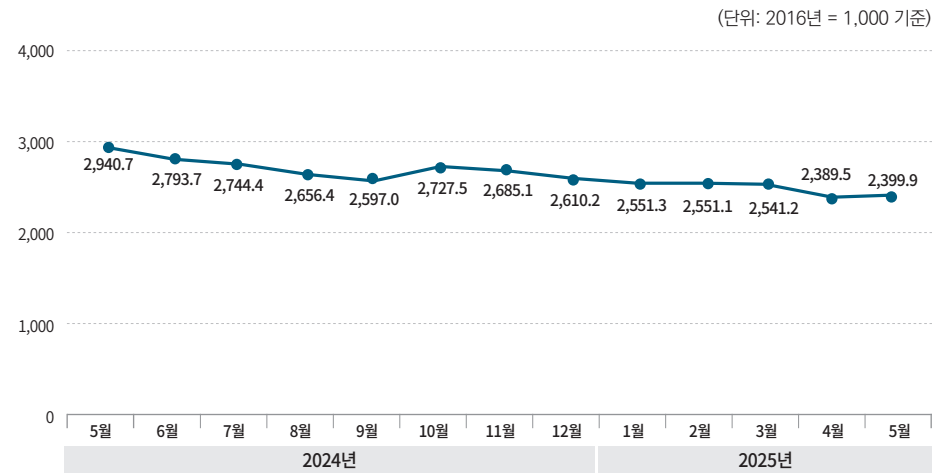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5월 광물종합지수는 2,399.9p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

’25년 5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2,399.9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940.7p) 대비해서는 18.4%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9	0.4	-18.4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5.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 광물 비축·방출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⁴⁰⁾

-  한국광해광업공단(코미르)은 국내 산업의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 광물을 평시에 비축하고, 공급 불안 시 민간기업에 대여·방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33종의 핵심 광물 중 약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30종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이를 감안해 코미르는 군산 희소금속 비축기지를 통해 약 60일분의 산업 수요에 해당하는 광물을 비축하고 있으며, '31년까지 이를 약 3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26년까지 새만금산단에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기존 비축기지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임
-  코미르는 3단계 비축 자산 운용제도에 따라 핵심 광물의 비축·대여·방출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대여 제도는 공급 차질 시 민간 기업에 비축 광물을 일정 기간 제공해 생산 차질을 방지하는 것이며, 방출 제도는 광물 가격 급등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직접 매각해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함
-  코미르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253t의 광물을 민간에 대여했으며, '24년에는 대여 46%, 방출 66%가 증가함

 - 공급 시간은 평균 30일에서 최단 8일까지 단축되었으며, 이후 수입 정상화 시 현물로 납부받아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음
-  '24년 11월에는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 인한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해 최초로 일반 방출을 실시함

 - 방출은 정량·정성 평가 후 산업부 승인 하에 이뤄졌으며, 자동차·화학·섬유 산업 등의 생산 차질을 방지함
 - 방출 이후 산업계는 대체재 검토 및 수입처 다변화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현재 수급은 점차 정상화되는 단계임
-  방출 이후 코미르는 수혜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반응을 청취하였으며, 적시에 원료를 공급받아 위기를 넘긴 데 대해 만족도가 높았음

 - 중소기업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코미르의 정보 공유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함

40) 동아일보(2025.06.2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21/131850575/2/2025.06.27>. 검색)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희소금속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수출 규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규 비축 품목 발굴, 예산 확대, 비축 자산의 유연한 운용 등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과 공급망 안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재



① 산림청, ‘탄소저장고’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⁴¹⁾

- 산림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재친화도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연수회를 개최함

 -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내외 산불 피해목 이용 사례, 목재친화도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 사례 등을 공유함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간 추진한 사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함
-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22년부터 전국 총 34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음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총 10개소에서 개소당 총 50억 원(4년간, 국비 50%)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해 건축·주택·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총 24개소에서 개소당 총 130억 원(4년간, 국비 50%)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임
- 목재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탄소저장고’로서 탄소 감축 효과를 제공함

 - 철강, 콘크리트 등 탄소 배출 소재를 대체할 수 있어 뛰어난 탄소 감축 효과를 갖추고 있음
 -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목재는 스트레스, 천식 등을 감소시키는 인체 친화적 소재로서의 장점도 보유함
-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조건축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한 국산목재 활용 목조건축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1) 산림청 보도자료(2025.06.09.),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08390&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06.2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08390&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06.26.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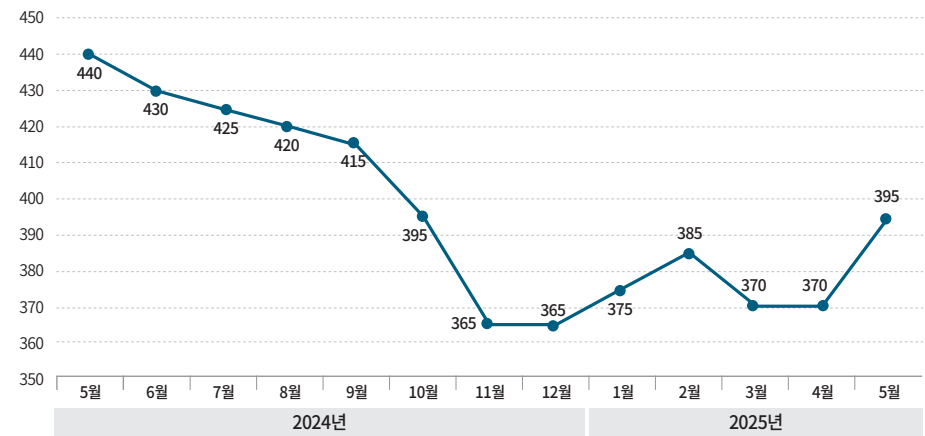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상승세 지속

- 국내 5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6.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2% 하락한 톤당 39만 5천 원을 기록함
- 생철 가격은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한 후 12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25년부터는 37만 원 이상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375	385	370	370	395	6.8	-1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6.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6.25.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6.25.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비수기 진입으로 고철 가격 하락 전환 전망⁴²⁾

본격적인 비수기 진입과 함께 6월 철근 유통 시세가 급락하면서, 지난달부터 강세를 이어오던 고철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분석됨

- 지난달 고철 가격 상승은 고환율 장세 속 수출 확대와 함께 추가 인상 기대감으로 인한 공급량 급감에 기인하나, 제강사 대보수 등 비수기 진입과 함께 주요 제강사들이 철근 출하까지 제한하면서 고철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근본적인 수요 침체와 이른 장마로 인해, 주요 제강사들인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은 지난 6월 14~22일 동안 유통항 철근 판매를 전면 중단하였음
- 한국특강, 한국제강은 6월 말까지 판매 중단 지속, 현대제철은 78만 원 확정 가격 출고로 사실상 출하를 중단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5.06.18.),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6/18/PS010618010100301B0002.pdf>(2025.06.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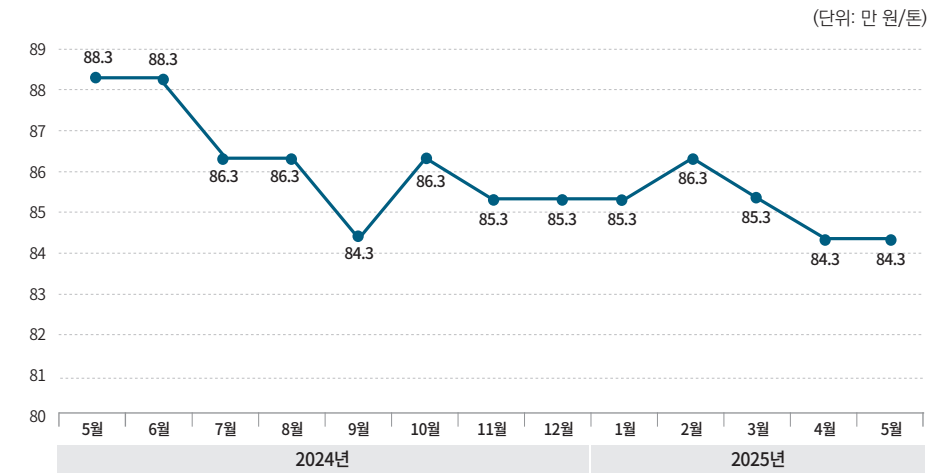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보합세 유지

- 5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84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85.3	86.3	85.3	84.3	84.3	0.0	-4.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6.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6.25.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6.25.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정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2조 7천억 원 추가 투입 계획⁴³⁾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전체 지출 확대분 20조 2천억 원 가운데 2조 7천억 원을 건설 경기 회복에 투입하기로 함

- 앞서 지난 1차 추경 당시 지원한 2조 5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입한 규모는 총 5조 원 이상임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 건설수주(경상)도 7.7%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동행지표와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나타내며 불황이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4천억 원, 민간 건설시장에 8천억 원의 마중물을 부어 총 5조 4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5.06.23.),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12/PS010512010100301B0001.pdf>(2025.06.25. 검색)

11) 자동차



1 '25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내수 증가, 수출 감소, 생산 감소⁴⁴⁾

- 4월 내수는 전월 대비 0.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150,622대를 기록함
 - 개별소비세 인하 및 노후차 교체 지원(3.14~ 시행) 등 정부 소비진작책 효과 발현과 신차효과(신형 팰리세이드, EV3, EV4, 타스만 등)가 겹쳐지며 내수 증가를 견인함
 - 친환경차는 국산 신차효과(아이오닉9, 캐스퍼EV, EV3, EV4 등)와 수입차 BYD(543대) 고객 인도 개시로 전기차 49.0%, 하이브리드 29.9% 증가하여 전체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8% 증가한 69,642대를 기록함
- 4월 수출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247,032대를 기록함
 - 미국 수출 감소와 전년도 4월이 '16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호실적에 기인한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임
 -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글로벌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미국 현지화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에 그친 73,706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29.8%를 차지함
- 4월 생산은 전월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385,624대를 기록함
 - 내수 판매 증가 흐름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함
 - 현대는 3.7% 감소한 반면, 기아는 3.7% 증가했으며, 한국지엠은 11.5%, KG모빌리티는 19.8% 감소하고 르노코리아는 5.2% 증가함

단위 : 대, 백만 \$, %

'25년 4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4월
내수	1,626,245	141,110	519,338	149,517	150,622	538,921	0.7	6.7	3.8
(국산차)	1,344,432	118,969	442,599	122,800	127,516	450,851	3.8	7.2	1.9
(수입차)	281,813	22,141	76,739	26,717	23,106	88,070	-13.5	4.4	14.8
수출	2,782,612	270,635	959,242	240,898	247,032	920,761	2.5	-8.7	-4.0
(완성차 수출액)	70,786	6,783	24,314	6,234	6,527	23,821	4.7	-3.8	-2.0
(부품 수출액)	22,549	1,960	7,724	1,843	2,029	7,298	10.1	3.5	-5.5
생산	4,128,242	394,458	1,418,901	370,629	385,624	1,398,902	4.0	-2.2	-1.4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5.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6.26.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5.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6.26. 검색)

2 친환경차, 내연차 첫 역전으로 내수 증가 견인⁴⁵⁾

-  5월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141,865대를 기록하며 친환경차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함
 -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사상 처음 7만 대를 돌파하여 73,511대(점유율 52%)를 기록하며 내연차 판매량을 최초로 추월함
 - 하이브리드 50,614대, 전기차 21,44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360대, 수소차 92대 순으로 판매됨
-  국산 전기차가 전년 동월 대비 58.8% 증가한 12,000대를 기록하며 전기차 캐즘 해소 신호를 보임
 -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다양한 차급의 모델 출시로 선택지가 확대되어 전기차 시장 회복을 견인함
 - 신차 출시와 함께 규제 개선 및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며 글로벌 전기차 캐즘 극복 움직임과 맞물림
-  5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1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5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가 실적을 견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75,184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함
 -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 조치와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27.1% 감소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파이낸셜뉴스(2025.06.16.), <https://www.fnnews.com/news/202506171125054219>(2025.06.26.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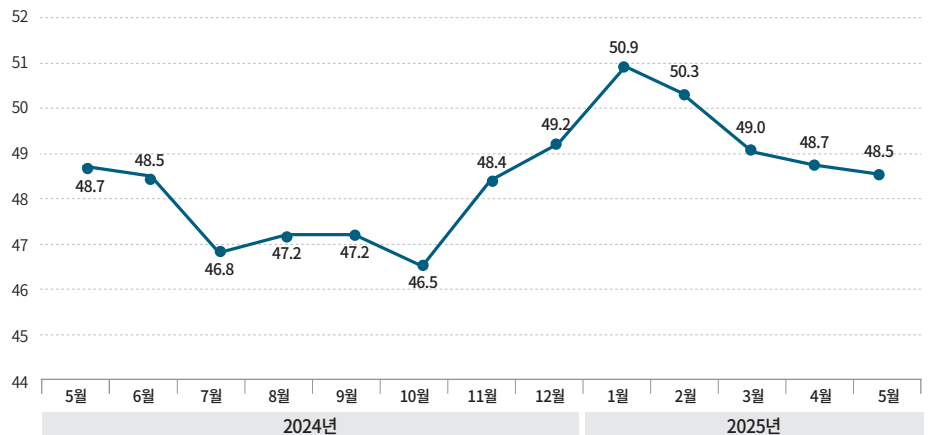
① '25년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세 지속⁴⁶⁾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발표한 '25년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전월(48.7) 대비 소폭 하락하며 석 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감

- 해당 수치는 시장 예상치(49.3)를 하회하며, 제조업 부문 내 수요 둔화와 생산 위축을 시사함
- 신규 주문 지수는 47.6으로 전월(47.2)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음
- 생산 지수는 45.4로 전월(44.0)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기준선(50)을 하회하며, 수축 상태 지속, 고용 지수는 46.8로 전월(46.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함
- 가격 지수는 69.4로 전월(69.8)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부담이 지속됨
- 수출 주문 지수는 40.1로 전월(43.1) 대비 하락하며 글로벌 수요 부진과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함

ISM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관세 부담 등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으며, 운송 지연, 관세 구조 변화, 고객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응 중임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6.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6) Trading Economics(2025.06.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5.06.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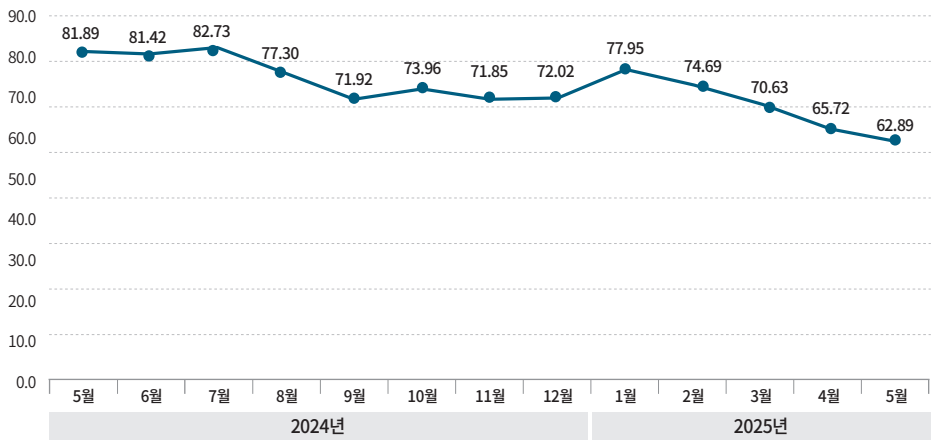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5월 국제유가, 1월 이후 하락세 지속

- '25년 5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4.3% 하락한 62.89달러를 기록함
- '24년에는 4월까지 상승 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월부터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5.9	-24.2
Brent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3.7	-22.9
WTI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3.2	-22.5
평균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4.3	-23.2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6.24.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6.24. 검색))

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에너지·석유화학업계 긴장 고조⁴⁷⁾

-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소비량 20%, LNG 무역량 20%가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이며,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공급 차단 시 국내 산업 타격 예상됨
 - 전문가들은 중국 반발과 이란 경제 타격 등을 이유로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게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이 각각 13~14%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직접적으로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에 가격 인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됨
 - 유가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 생산자가격이 0.4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됨
 -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효과와 수요 둔화 가능성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경향신문(2025.06.1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52034005\(2025.06.24. 검색\)](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52034005(2025.06.24. 검색))

3 정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에 신중⁴⁸⁾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한국에 적극 요청 중이나 사업성 검토는 미진한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LNG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방침을 밝히고 참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난 6월 2~3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했으나 사업의 경제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전달받지 못해 사업 참여 여부를 가늠할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알래스카 LNG 사업은 자원 확보를 넘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안보 구상의 하나로 해석되며,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과도 연관됨
-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사업 사례와 구체적인 제안서 및 사업계획 등 자료 부족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제공될 구체 자료와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한국가스공사, LNG병커링 시장 선도⁴⁹⁾

 한국가스공사(KOGAS)가 LNG병커링 사업을 선도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응에 속도 내고 있음

- LNG는 공해물질 배출이 적어 에너지 전환기의 브리지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LNG 추진 선박과 연료 수요가 '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 '20년 KOGAS는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병커링(KOLB)을 설립한 후, 트럭 대 선박(TTS), 항만 대 선박(PTS), 선박 대 선박(STS) 방식 병커링을 모두 성공한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3년에는 7,500m³급 전용선 ‘블루웨일’호를 도입함
- 다만, 국내 LNG 병커링 수요는 아직 국제 시장 대비 미미하여 적극적인 수요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뉴스1(2025.06.09.), [https://www.news1.kr/economy/industry-trade/5807050\(2025.06.24. 검색\)](https://www.news1.kr/economy/industry-trade/5807050(2025.06.24. 검색))

49) 문화일보(2025.06.13.), [https://www.munhwa.com/article/11511972?ref=naver\(2025.06.24. 검색\)](https://www.munhwa.com/article/11511972?ref=naver(2025.06.24.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① '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와 에틸렌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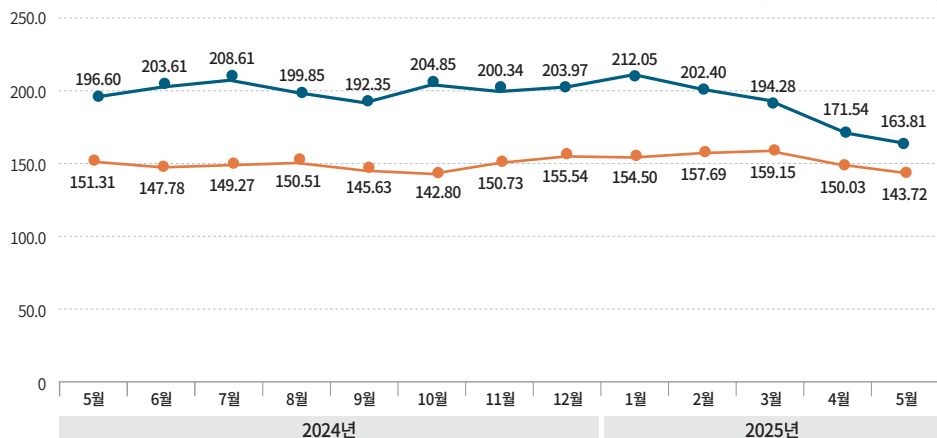
5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5% 하락한 163.81p, 에틸렌은 전월 대비 4.2% 하락한 143.72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음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도 3월까지 상승했으나 하락 전환함
- 기간 유가가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월부터 달러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단위: 2020 = 100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4.5	-16.7
에틸렌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43.72	-4.2	-5.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5.06.24.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5.06.24.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⁵⁰⁾

-  주철현 국회의원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함
 - 석유화학산업이 집적된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 기반임
 -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안은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지역경제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음
 - 원활한 사업재편 도모를 위해 설비 가동률·공급능력 조정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도록 함
 - 또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포함되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머니투데이(2025.06.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114450416899>(2025.06.24. 검색)

3 HD현대그룹과 롯데케미칼, NCC 설비 통합 논의⁵¹⁾

-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이 대산 NCC 설비를 통합 운영을 논의하는 등 석유화학업계 재편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대산단지 내 NCC 설비 통합 시, 인건비·시설 관리비 절감과 원재료 구매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롯데케미칼이 설비를 이전하고 HD현대오일뱅크가 추가 출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 이번 논의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치적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석유화학업계의 재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과잉생산 대응을 위해 NCC 기업 수 축소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다음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동아일보(2025.06.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12/131789816/2/2025.06.24>.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7월 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